



Africa IP UPDATE

2026년 9월호

COUNTRY UPDATES

주요 성과, 개혁,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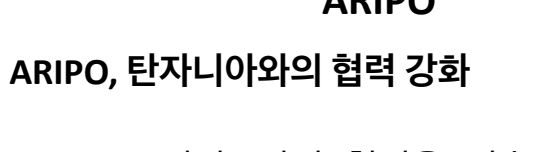
2026년 9월호 ‘아프리카 IP 업데이트’를 보내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아프리카 전역의 지식재산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규제 동향, 법률 동향 및 지역별 주요 활동을 매월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매드 드 카사망스(Madd de Casamance)와 펜자 페퍼(Penja Pepper)의 OAPI 최초 리스본 시스템 등록이라는 역사적 성과
- 역내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한 ARIPO와 탄자니아 간의 지속적인 협력
- 케냐의 지식재산 행정 체계 개편안
- 히트곡 ‘Way Maker’의 소유권을 둘러싼 나이지리아의 획기적인 저작권 판결

이 밖에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이집트의 최신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동향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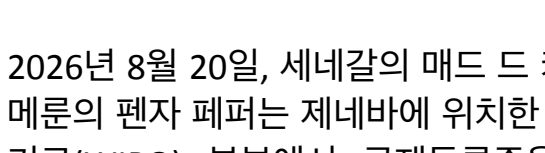
ARIPO

ARIPO, 탄자니아와의 협력 강화

ARIPO는 회원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자니아가 지역 차원의 논의에서 주요 초점이 되고 있다. 2026년 8월 27일, ARIPO 사무총장 베마냐 트웨바제(Bemanya Twebaze)는 하라레에 위치한 ARIPO 사무국에서 주지침바웨탄자니아 대사 CP 수잔 살로메 카간다(CP Suzan Salome Kaganda)와 회담을 가졌다.

이번 논의에서는 탄자니아의 우선순위와 협력 기회, 특히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 옹호 및 역량 강화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 협력은 회원국의 참여를 강화하고 혁신 및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ARIPO의 광범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ARIPO 관할 구역 전반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있어, 이와 같은 지속적인 협력은 ARIPO가 역내 지식재산 협력의 효과성과 실질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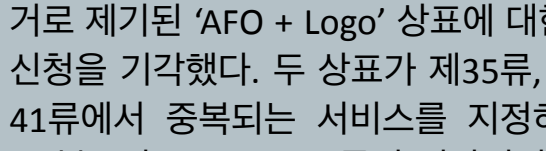
OAPI

역사적 등록: 매드 드 카사망스와 펜자 페퍼, 리스본 시스템에 등록

2026년 8월 20일, 세네갈의 매드 드 카사망스와 카메룬의 펜자 페퍼는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국제등록증을 받았다. 이번 등록은 OAPI 지역에 있어 중요한 첫 사례로, 두 제품은 OAPI 지역을 원산지로서 하는 지리적 표시 중 리스본시스템에 따라 국제 등록된 최초의 사례이다.

이러한 발전은, 품질과 명성이 원산지와 본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을 보호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지리적 표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제품 모두 이미 국가 및 OAPI 차원에서 보호를 확보했으며, 펜자 페퍼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국제 등록을 통해 참여 관할 지역에서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국제 무역에서 해당 지명의 사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성과는 또한 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0년간의 노력 끝에, OAPI가 2022년 12월 리스본 협정의 제네바 의정서에 가입한 것이 갖는 실질적인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두 제품 외에도, 이번 등록은 다른 OAPI 지리적 표시들이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아프리카 고유의 지역 특산품이 세계 시장에서 상업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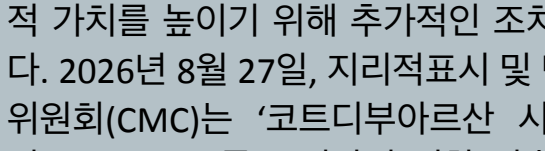


OAPI

OAPI, AFO + 로고에 대한 AFP의 이의신청을 기각

2026년 5월 19일자 결정에서 OAPI는 AFP(Agence France-Presse)의 선등록 상표인 ‘AFP + Logo’를 근거로 제기된 ‘AFO + Logo’ 상표에 대한 AFP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두 상표가 제35류, 제38류 및 제41류에서 중복되는 서비스를 지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API는, 특히 전반적인 차이점 및 뚜렷이 구별되는 개념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공통 문자 ‘a’와 ‘f’를 포함한 두 표장의 유사성이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OAPI가 혼동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지를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가 되며, 서비스의 중복과 상표 간의 제한적인 유사성만으로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OAPI 고등심판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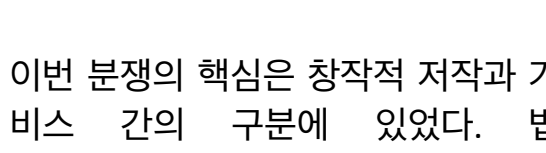
OAPI

코트디부아르, 시어버터의 보호 및 인지도 제고 추진

코트디부아르는 자국산 시어버터의 인지도와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6년 8월 27일, 지리적표시 및 단체표장 국가 위원회(CMC)는 ‘코트디부아르산 시어버터’ 라벨인 SHEATROU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 문서를 채택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코트디부아르산 시어버터의 식별성, 진위성 및 품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자 및 해당 부문의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PCCET의 재정적 지원과 WIPO 및 OAPI의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제품의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기반 보호 및 품질 식별 메커니즘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SHEATROU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노후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적 연관성이 강한 제품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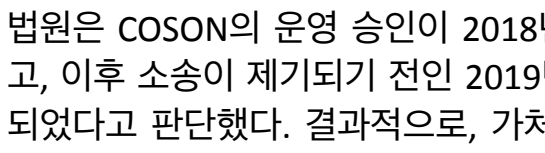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밝히

라고스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음악 프로듀서 마이클 올루올레(Michael Oluwale)가 나이지리아의 복음 가수 시나치(Sinach)를 상대로, 그녀의 세계적 히트곡 ‘Way Maker’와 관련하여 제기한 50억 나이라 규모의 저작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026년 7월 24일 선고된 판결에서 법원은 올루올레가 해당 음악 저작물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창작적 저작과 기술적 제작 서비스 간의 구분에 있었다. 법원은 ‘Way Maker’가 올루올레가 녹음 작업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시나치에 의해 작곡되고 연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독창적인 창작 표현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프로듀싱, 믹싱 또는 마스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기초가 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지위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녹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상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음악 및 창작 산업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며, 특히 당사자 각각의 창작적·기술적 기여도가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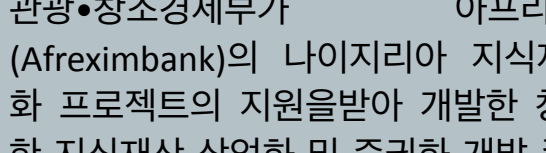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상고법원, COSON의 금지명령 신청 기각 결정 유지

라고스에 있는 상고법원은 나이지리아 저작권협회(COSON)가 나이지리아 저작권위원회(NCC)를 상대로 제기한 중간항소를 기각하고, NCC가 COSON에 대해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연방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2026년 7월 9일에 선고된 판결은 또한 20만 나이라의 소송비용을 COSON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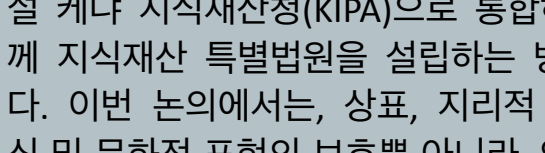
법원은 COSON의 운영 승인이 2018년에 정지되었고, 이후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19년 5월에 만료되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존하려고 했던 기존의 유효한 승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집중관리단체가 유효한 규제 승인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초가 되는 규제상 지위가 이미 만료된 경우 임시 구제조치의 한계를 보여준다.



케냐

나이지리아, 지식재산 기반 금융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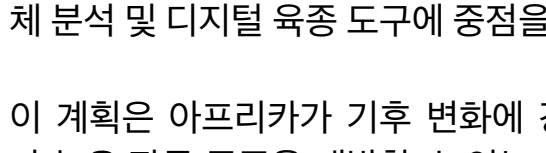
나이지리아는 지식재산을 더욱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융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6년 8월 5일 연방정부는, 연방 예술·문화·관광·창조경제부가 아프리카수출임은행(Afreximbank)의 나이지리아 지식재산 보호 강화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창조산업을 위한 지식재산 상업화 및 증권화 개발 종합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특히 나이지리아의 창조 및 디지털 경제 분야 내에서, 지식재산 자산이 대출, 투자 및 기타 금융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저작권,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 자산의 가치평가, 상업화 및 자금 조달 활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자산들의 상업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다.



케냐

케냐, 지식재산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안 제시

케냐는 2026년 케냐 지식재산법안에 따라 지식재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8월 18일 의회 청문회에서 산업부 수석 차관인 KIPi, KECOCO 및 위조방지국의 기능을 신설 케냐 지식재산청(KIPA)으로 통합하고, 이와 함께 지식재산 특별법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상표, 지리적 표시,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의 보호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창작된 저작물의 소유권을 포함하여, 인공지능이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케냐의 지식재산 행정 및 법률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의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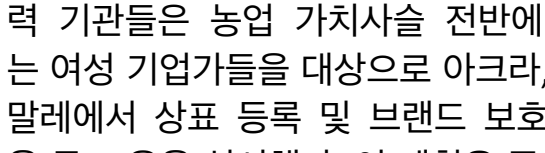


케냐

아프리카의 차세대 식물 육종가 육성

VACS 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온 40명 이상의 신진 식물 육종가와 연구자들이 나이로비에서 진행된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양적 유전학, 유전체 분석 및 디지털 육종 도구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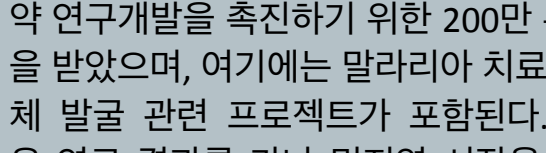
이 계획은 아프리카가 기후 변화에 강하고 영양가가 높은 작물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식재산, 식물의 유전체 해독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농업 혁신, 식량 생산 및 새로운 작물 개발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나

가나 여성 기업가들을 위한 상표 보호 지원

가나는 등록청 산하 가나 산업재산권 사무소(GHI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무역·농업·산업부의 협력을 통해 여성 주도 농업비즈니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 8월, 협력 기관들은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여성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아크라, 쿠마시 및 타말레레에서 상표 등록 및 브랜드 보호에 특히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계획은 중소 농업기업들이 더욱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제품 가치를 높이며, 국내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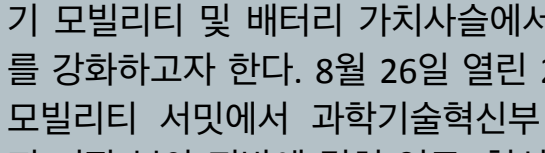


가나

가나, 제약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상업화에 탄력

가나의 8개 연구·산업 협력 프로젝트가 PharmaVax Ghana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및 제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20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말라리아 치료 및 AI 기반 항체 발굴 관련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 결과를 가나 및 지역 시장을 위한 현지 생산 의료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 이전은 연구실로부터 상업적 생산으로 혁신을 옮겨가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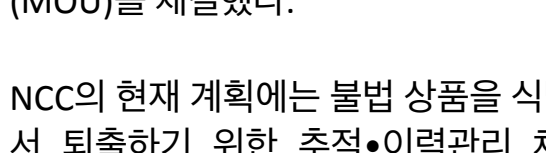
이번 보조금 지급 발표는 가나 국립백신연구소와 GIZ가 공동 주최하고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와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와 제조업의 국내·해외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수입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가나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에서 개발된 지식재산을 배터리 분야의 기회로 전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국에서 개발된 기술과 지식재산의 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전기 모빌리티 및 배터리 가치사슬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8월 26일 열린 2026 uYilo e-mobility 서밋에서 과학기술혁신부 차관은 예니지 저장 분야 전반에 걸쳐 연구, 혁신, 지식재산 개발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림포포대학교와 망간 금속회사(Manganese Metal Company) 간의 협력이 있는데, 이들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망간과 현지에서 개발되고 공공자금으로 지원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배터리등급의 황산망간을 시범 규모로 생산하는 것을 시연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연구 역량과 광물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 응용 분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 및 기술 상용화의 역할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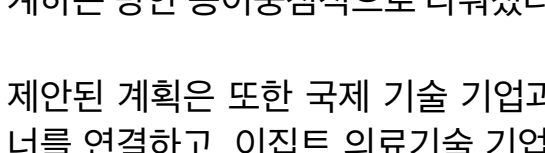


남아프리카공화국

불법 상품을 대상으로 한 추적·이력관리 조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불법 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청(SARS)과 국가소비자위원회(NCC)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 기관은 관세, 조세 및 소비자 보호 집행 분야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CC의 현재 계획에는 불법 상품을 식별하고 시장에 서 퇴출하기 위한 추적·이력관리 체계를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가시성을 개선함으로써 위조품 및 기타 불법 거래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



이집트

의료기술 투자펀드 조성 검토 중

이집트는 생명공학,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 기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월 보건부와 골드록벤처(Gold Rock Venture) 간의 논의에서는 과학 연구와 지식재산을 제품 개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및 상업화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제안된 계획은 또한 국제 기술 기업과 이집트 파트너를 연결하고, 이집트 의료기술 기업의 지역 및 국제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